

광주교육청 '상·벌점제' 전면폐지 딜레마

학생 행동따라 점수...인성 점수화에 인권 후퇴 지적

경남·서울 폐지 추진...“생활지도 효과” 현장선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일부 초·중·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벌점제'(학생생활평점제) 폐지 여부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상·벌점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칙 개정권고' 공문을 지역 315개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이 수년 전 체벌을 금지하면서 생활지도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상·벌점제는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고 벌점 누적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

하는 지도 방법이다. 지각하면 벌점 2점, 봉사하면 상점 2점을 주는 식이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가 학생 행동을 통제하는 성격이 강해 학생인권에 반한다고 보고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평점이 나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해 학생 인성을 점수화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도 감안됐다.

진보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경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상·벌점제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24일 학생인권 보호·증진 차원에서 해당 제도 폐

지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상·벌점제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전면폐지'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만 그치면서 지난해 3월 공문 발송 이후 해당 제도를 폐지한 학교는 삼육고와 운암중 등 소수 학교뿐이다. 시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상·벌점제 운용학교의 통계조차 없다고 한다.

이는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하지 말란 말이나 다름없다"며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각급 학교 현장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이 상·벌점제인데, 이마저도 폐지하면 학생들이 교사 말을 듣겠느냐는 분위기가

자백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육고 백준현 교감은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전달받고 구성원간 논의 끝에 올해부터 폐지를 결정했지만 상·벌점제를 운영하면서 잘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면서도 "다만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학생인권은 소중하다.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벌점제 운영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다"면서 "학교 현장의 반대 목소리는 명분일 뿐이다. 하지만 달리 강제할 순 없어 (해당 제도폐지에 대해) 유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무료 급식소...폭염 속 기다림 폭염이 이어진 26일 오전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무료급식소를 찾은 시민들이 햇살을 피해 천막 아래에서 식사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철 없는 해무...피서철 여객선 지연·결항 속출

폭염에 수온 상승 봄→여름 집중...섬 주민·관광객 불편 가중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바다수온 상승으로 봄철에 주로 발생하던 해무(海霧)가 이례적으로 여름 시즌에 집중되면서 여객선 지연·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본격 휴가철을 맞아 전남 각 섬지역 피서지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잦은 여객선 지연·결항으로 관광객은 물론 육지를 오가는 섬 주민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26일 전남지역 운항관리센터와 각 해운업계에 따르면 7월 들어 거의 매일 해무가 발생하면서 여객선 지연과 결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목포에서는 지난 23~25일 연속 사흘 동안 안개로 인한 여객선 지연과 결

항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21항로 44척 모든 여객선이 1km 앞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통제됐다.

완도와 여수도 마찬가지다. 지난 21일 완도는 13항로 21척 운항이 통제됐으며, 여수는 거문도를 향하는 여객선 등 12항로 13척의 운항이 제한되는 등 여객선 운항 통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무 때문에 짧게는 30분, 길게는 3~4시간씩 여객선 운항이 지연되거나 안개가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온종일 이어지면서 결항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해무는 봄철에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해무는 봄철 차가운 기단이 북서기류를 타고 내려와 비교적 따뜻한 바닷물과 만나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여름철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한낮 기온이 올라가도 쉽게 걷히지 않는 특성을 보여 여객선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 같은 여름 바다 안개현상의 원인으로 고수온 현상을 지목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평년보다 2.2도 가량 높은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바다에서 대량 수증기가 자주 발생한 탓에 올해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7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더해져 수시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김한영기자 young@

결핵 걸린 지역 의료인 107명

5년간 전국 1399명...예방책 시급

최근 5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보건의료인이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예방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100명이 넘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결핵에 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6월 결핵에 걸린 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139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환자가 29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83명, 부산 130명, 경남 104명, 인천 94명, 대구 79명, 경북 60명 등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53명과 54명 등 총 107명으로 집계됐다. /박진표기자 lucky@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8 해질 09:31
해짐 19:40 달짐 22:19

만조 때 해안 침수 우려
먼 바다에서 바람 강하고 무더위 이어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3/34	보성	맑음	20/30
목포	맑음	23/32	순천	맑음	22/31
여수	맑음	23/29	영광	맑음	22/33
나주	맑음	21/33	진도	맑음	24/28
완도	맑음	23/30	전주	맑음	22/33
구례	맑음	19/33	군산	맑음	23/32
강진	맑음	21/31	남원	맑음	19/32
해남	맑음	22/31	홍산도	맑음	22/27
장성	맑음	22/32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0	
면바다	동~남동	0.5~2.5	동~남동	0.5~2.0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북동~동	1.5~2.5	북동~동	1.0~2.0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돌매

목포	간조	만조
	10:06	05:03
	22:15	17:11
여수	05:32	11:47
	17:43	--:--

주간 날씨

28(금)	29(토)	30(일)	31(월)	8/1(화)	2(수)	3(목)
☁	☀	☀	☀	☀	☀	☀
25/34	25/32	25/33	25/32	25/32	24/33	24/33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매우높음
- 피부질환 매우높음

김상곤 교육부장관 광주서 경청투어

내일 DJ센터...중3·고1 학부모 초청 수능 개편안 의견 청취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과 관련, '찾아가는 학부모 경청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21학년도 수능의 대상이 되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등 지역 학부모 16명을 초청, 의견을 듣는 자리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5분) 뒤 비공개로 100분간 학부모들과 수능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또 수능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은 지, 전면적 도입이 나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학부모는 광주(6명)·전남(5명)·전북(5명) 등 지역 및 학교 유형을 고려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

이기창 광주경찰청장 승진 경기남부청장 내정

정부는 26일 이기창 광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감)으로 승진·내정하는 등 경찰 차관감 4명의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라는 점에서 인사폭과 경찰 임직경로, 지역안배 등에 큰 관심이 쏠렸다. 치안감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서울·인천·부산·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6명이다.

경찰청 차장에는 박진우 경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에는 이주민 경찰청 외사국장, 부산지방경찰청

장에는 조현배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각 승진과 함께 내정됐다.

새 치안감감으로 승진 내정된 4명은 각각 제주(경찰청 차장), 서울(인천청장), 영남(부산청장), 호남(경기남부청장) 출신이다.

이번 인사에 따라 치안감감 6명의 지역안배는 영남 2명(부산청장·경찰대학장), 서울 등 기타 지역 2명(경찰청 차장·인천청장), 호남 1명(경기남부청장), 충청 1명(서울청장)으로 짜여졌다.

한편 이기창 신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광주서서고와 경찰대(2기)를 졸업했다. /박진표기자 lucky@

8·15 광복절 기념 제3회 화순~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2017년 8월 20일(일)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 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 가 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500명(입금기준)

주최 | 광주일보사·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마라톤세상

후원 |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